

우크라이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4. 4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604천 km ²	GDP	1,809억 달러 (2013년)
인구	45.2백만 명 (2013년)	1인당 GDP	4,005달러 (2013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Hryvnya(HRN)
대외정책	친서방 정책	환율(달러당)	7.99 (2013년 평균)

-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, 동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국가임. 철광석, 망간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며, 철강, 에너지, 기계 등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.
 - 우크라이나인(78%), 러시아인(17%)을 비롯 벨로루시인, 루마니아인 등 다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우크라이나계 위주의 서부 농업지역과 상대적으로 러시아계가 많은 동부 공업지역간의 민족, 문화적 차이가 정치적 성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.
 - 2004년 시민혁명(일명 오렌지혁명*)을 통해 친EU 성향 유셴코 대통령이 집권하였으나 2010년 2월 대선에서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됨. 2014년 2월에는 반정부시위로 야누코비치가 퇴진하고 친EU 과도정부가 구성됨.
- * 오렌지혁명: 2004년 선거 당시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으로 여당의 부정 선거를 규탄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게 했던 시민 혁명
- 대외적으로는 친EU 성향의 과도정부 구성을 계기로 EU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됨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 ^f
경제성장률	4.1	5.2	0.2	0.1	-2.3
재정수지 / GDP	-6.0	-4.1	-4.3	-5.6	-4.5
소비자물가상승률	9.4	8.0	0.6	-0.3	7.5

자료: IMF, EIU.

□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2014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

- 우크라이나는 주요 수출품인 철강의 국제가격에 따라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받고 있음.
- 2012년에는 투자 부진, 유로존 경기둔화에 따른 제조업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.2%로 하락함.
- 2013년 산업생산과 수출 감소 등으로 0.1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-2.3%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공공요금 보조금 축소 등으로 재정수지는 -4% 대로 소폭 개선 전망

- 2012년 재정수지는 동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이 증가한 반면, 재정수입의 증가 둔화 등으로 -4.3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3년에는 국영 에너지기업에 대한 적자 보전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-5.6%로 악화되었으나, 2014년에는 수도 및 가스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-4.5%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7.5% 수준 전망

- 2012년에는 식품 가격 하락,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노력 등으로 0.6% 수준으로 안정됨.
- 2013년에도 경기둔화, 물가 억제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-0.3%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.5%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저부가가치 철강, 에너지, 기계 등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

- 우크라이나 경제는 주로 저부가가치 상품 중심의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, 2012년 기준 철강·철광 제품이 수출의 23.4%를 차지함.
 - 산업비중: 철강 24.3%, 에너지 14.5%, 식품가공 14.2%, 기계·금속가공 14.0% 등
- 정부의 투자부진으로 인해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생산 기반, 교통 인프라 및 시설 기반 등이 미약한 편이며, 구 소련시대에 각광받았던 항공, 우주 분야 등의 국제경쟁력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.

□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

- 우크라이나는 전체 수입의 25.9%를 석유·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 특히 러시아에 대한 석유·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아 양국관계의 경색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받게 됨.
 -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할인가격 혜택을 폐지한 2006년, 2009년과 2010년에 양국간 가스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가스공급이 중단된 바 있음.
 -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유라시아경제연합(EEU)에 편입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1,000m³ 당 404달러에서 269달러 수준으로

로 33% 인하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친EU 과도정부 구성으로 2014년 4월부터 가격 인하 혜택을 중단하기로 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광물자원 및 CIS 국가 중 2위의 인구 보유

-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 영토 면적기준 3위의 국가로 철광석(매장량 세계 1위), 망간(매장량 세계 1위), 석탄(매장량 세계 6위), 우라늄(매장량 세계 10위)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음.
- 4,50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편임.

□ 대 서방 에너지 수송로 역할

-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및 물류의 주요 수송로로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통과료(transit fee)를 확보하고 있음.
 -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약 50%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으며, 우크라이나는 2012년 2분기부터 1,000m³ 가스의 100km 통과 기준 통과료를 3.08달러에서 3.11달러로 상향조정함.

다. 정책성과

□ 외환부족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MF 구제금융 추진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3년 1월 IMF에 1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스가격 인상을 꺼려 IMF와의 협상이 중단됨.
-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IMF는 140억 ~ 1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.
 - IMF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외환시장 유연성 확대, 가스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요구함.

□ 국내 가스 공급가격 인상조치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감축 추진

- 2013년 초에 IMF 권고에 의거, 가스 공급가격을 추가 50% 인상할 계획이었으나,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음.
- 그러나,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가스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, 석유 및 가스 분야의 부분적 민영화 등 재정수지 적자 감축을 추진함.
-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2014년 3월 국내 가스가격을 50%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 ^f
경 상 수 지	-3,016	-10,233	-14,335	-15,778	-7,697
경상수지 / GDP	-2.2	-6.3	-8.1	-8.7	-4.4
상 품 수 지	-9,597	-18,031	-21,846	-21,727	-15,106
수 출	47,299	62,383	64,427	59,501	61,252
수 입	56,896	80,414	86,273	81,228	76,358
외 환 보 유 액	33,327	30,409	22,656	18,776	-
총 외 채 잔 액	124,968	135,296	135,067	134,377	146,644
총외채잔액 / GDP	91.6	82.8	76.6	74.3	84.2
D S R	35.8	30.1	28.8	31.1	23.1

자료: IFS, EIU.

□ 원유·가스 수입 등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지속에 따라 경상수지도 만성적인 적자 기조

- 우크라이나는 철강, 곡물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원유, 천연가스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.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증가,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됨.

- 2012년과 2013년에도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증가,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각각 GDP 대비 -8.1%와 -8.7% 수준으로 크게 악화됨.
- 2014년에는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며 상품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도 4.4%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로 외채상환부담 증가

-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2013년에도 188억 달러(월평균수입의 2.1개월분) 수준으로 감소함.
-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5% 수준이나 외환보유액 감소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011년 107.3%, 2012년 142.3%로 상승하였으며, 2013년에도 186.7%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1년과 2012년에는 총수출 증가 등으로 DSR이 각각 30.1%, 28.8%로 하락하였으나, 2013년에는 총수출이 감소하며 31.1%로 상승하였음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12년 10월 여당의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여야간 갈등 심화

○ 2012년 10월 말에 치러진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지역당이 450석 중 185석을 차지하였으며 연정 내 공산당은 32석을 확보함.

- 티모셴코 전 총리가 이끄는 제1야당인 조국당은 101석, UDAR 40석, 자유당 37석을 확보함.

○ 조국당 대표 티모셴코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하였으며,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여야간 대치 상황이 계속 돼 의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.

□ EU EP 가입 중단에 따른 반정부시위로 야누코비치 퇴진 및 친EU 과도정부 구성

○ 러시아의 압박과 경제적 유인 제공 등으로 2013년 11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EP(Eastern Partnership) 가입 중단을 선언함.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에 대한 반발로 EU EP 가입 지지시위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반정부시위가 지속됨.

○ 반정부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말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야당 지도자 티모셴코 전총리를 석방함. 이후 우크라이나 의회는 야체뉴크 조국당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하는 등 과도정부를 구성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민족 구성, 언어 등으로 인한 동서 지역간 갈등 지속

○ 언어, 종교, 문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동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 통합 및 정치경제적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- 2010년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러시아계가 많은 동부 공업지역은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를 지지한 반면, 우크라이나계 위주의 서부 농업지역은 친EU 성향의 티모셴코를 지지함.

* 우크라이나 민족 구성: 우크라이나계 77.8%, 러시아계 17.3% 등

□ 경기침체와 가스가격 인상 등으로 국지적인 소요사태 발생가능성 상존

- 야누코비치 대통령 집권기간에 공정선거, 언론의 자유, 야당의 정치적 자유 등이 축소되는 한편, 긴축 재정정책과 가중된 경제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축적됨.
- 2012년 7월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어 사용 지역에 대해 러시아어의 공식언어 지위를 부여하는 신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함. 또한, 2012년 10월 총선 후 야권 지지자 수백명이 중앙선관위 주변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임.
- 경기침체와 취약한 공공 재정상황, 가스 공급가격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소요사태의 발생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.

3. 국제 관계

□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등으로 인해 EU와의 협력 강화 계기 확보

- 우크라이나는 오렌지혁명 이후 친서방 성향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5월에는 WTO에 공식 가입하였음.
- 우크라이나는 2007년 말 만료된 EU와의 동반자협력협정(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)을 대체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신협정은 물론 FTA 체결 추진 등 EU와의 관계강화에 주력하고 있음.
-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우크라이나의 친EU 정책이 가속화됨.

□ 친EU 정책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

-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2010년 1월 취임 이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

제안한 새로운 유럽안보조약기구의 창설 지지, 러시아어의 제2 공용어 복귀,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 연장, 가스협력 확대 등 친러시아 정책을 취해 왔음.

- 양국은 2010년 3월 정상회담을 통해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고, 통상, 우주, 항공기 제작, 원자력, 나노기술, 군사기술, 정보기술투자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.
- o 그러나, 우크라이나가 EU와의 FTA 체결을 러시아-카자흐스탄-벨로루시 3국 관세동맹 가입보다 중요시함에 따라 러시아와는 갈등관계에 있음.
- 러시아는 2013년 1월 가스 공급가격 인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 가입을 내세우는 한편, 우크라이나에 2012년 미납 가스대금 지불을 요구함.
- o 게다가 2014년 2월 반정부시위에 따른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 및 친EU 과도정부 수립,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러시아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 발생

- o 2013년 12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 승인잔액은 단기 897.5백만 달러, 중장기 3,396.7백만 달러이며, 이 중 단기 0.9백만 달러 및 중장기 257.1백만 달러 등 총 258백만 달러(6.0%)가 연체중이며 연체금액 중 중장기 120.8백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국제 신용평가기관 우크라이나 신용등급 하향 조정

- o 2014년 2월 초 Fitch는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B-에서 CCC로 하향 조정함. S&P도 2014년 2월 말 정치적 상황 악화와 디폴트 가능성 등을 이유로 CCC+에서 CCC로 하향 조정함.

○ OECD는 2013년에 이어 2014년 1월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정치상황 및 외채부문 악화 등을 이유로 7등급을 유지함.

* 주요 평가기관의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등급 현황

- S&P: B('10.5)→B+('10.7)→B('12.12)→B-('13.10)→CCC+('14.1)→CCC('14.2)

- Moody's: B1('03.11)→B2('09.5)→B3('12.12)→Caa1('13.9)→Caa2('14.1)

- Fitch: B+('08.10)→B('09.2)→B-('09.11)→B('10.7)→B-('13.11)→CCC('14.2)

- OECD: 7등급('10.1)→7등급('11.1)→7등급('12.1)→7등급('13.1)→7등급('14.1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92년 2월 10일(북한과는 1992년 1월 9일)

□ 주요협정: 무역협정, 투자보장협정('97), 이중과세방지협정('02), 항공협정('03),
세관협력협정('04),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('06), 원자력협력협정('07),
문화협정('09)

□ 2013년 양국간 교역규모 감소

○ 1992년 2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 18억 달러, 2012년 1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11억 달러로 감소함.

* 우크라이나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68위 수출대상국임.

○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, 합성수지, 자동차부품 등이며, 주요 수입품목은 사료, 정밀화학원료, 석유제품 등임.

□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실적 미미

○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누계액은 2013년 12월 말 기준 2.5억 달러(32건)임.

* 연도별 투자금액: 9.5만 달러('10), 6.4만 달러('11), 64만 달러('12), 24만 달러('13)

<표 3>

한·우크라이나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	2011	2012	2013	주요품목
수 출	1,023	1,149	635	자동차, 합성수지, 자동차부품, 철강관
수 입	733	758	448	사료, 정밀화학원료, 석유제품
합 계	1,756	1,907	1,083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우크라이나는 2013년 산업생산 및 수출 감소 등으로 0.1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4년에는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-2.3% 수준으로 전망됨.
-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, 수출에서 저부가가치 철강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%에 이르는 등 수출품목이 편중되어 있는 한편, 러시아에 대한 비교적 높은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만성적인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.
-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과 친EU 성향의 과도정부 구성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EU와의 협력관계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.
-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한편, 총외채잔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하고,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이 높은 수준으로 인해 대외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.

선임조사역 김찬수 (☎02-3779-5703)

E-mail: avik@koreaexim.go.kr